



이달의 재외동포 _ 이상덕 청장 “재외동포 인식 바꾸기 위해 재외동포들 모국기여 사례 적극 발굴할 것”

이슈 & 화제 _ 재외동포청 · 중기중앙회 · 미주한상총연 합동 점검회의 ‘준비 이상무’

“미국 정부에 K중기 관세 애로 전달하겠다”

기획 _ 재외동포청, 전세계 차세대 리더 연대 구축 나섰다



3월의 재외동포 김평진 전 재일제주협회 회장



고려인 청소년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며

오늘 매우 행복하고 감사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아시아 발전재단(ADF)이 지난해 의욕적으로 시행한 ‘제1기 고려인 청소년 제빵 제과교육’ 수료생 중 3명이 국내 유명 제과점에 취업이 결정됐다는 소식이다. 지난 10여 년 조선족, 고려인 동포들과 다문화 배경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학사업 등을 진행해 온 아시아발전재단의 열정과 헌신이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이 갖는 큰 의미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어 온 고려인에 대한 관심의 폭을 크게 넓힌 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고려인 동포 노동자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고려인 동포 문제에서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한국의 공교육을 따라가지 못해 탈락한 고려인 청소년들이다. 이들은 우리말도 서투르고, 특별한 직업 능력도 없다. 직업교육을 위한 능력을 키우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충분치 못해 학습 기회를 갖기도 쉽지 않다. 다문화 배경 학생을 포함해 한국인 모두가 5년간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수혜도 받을 수 없다.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이다.

아직도 고려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160여 년 전 물설고 낫선 연해주에 거친 땅에 내몰린 우리 동포들이 곤궁한 삶의 현장에서도 자신들을 지켜주지도, 키워주지도, 돌보지도 못한 힘없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과 안중근의 이야기 등을 통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거기에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의 황무지로 강제이주 당했다는 이야기가 더해지면 새삼 고려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지가 부끄럽기만 하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과 문화강국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법무부의 ‘지역특화비자 제도’ 시행 이후 인구감소 문제 해결 방편으로 고려인 동포들에게 일자리와 숙소, 자녀들의 교육공간까지 함께 제공하려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반갑고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필자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는 다소 아쉬움을 느낀다. 그것은 고려인 동포들을 인구감소 시대에 노동력을 해결하는 존재만으로 보려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인은 누구인가? 그들은 조선조 말, 약하고 무능한 조국으로부터 버림받고 고통 속에서도 조국에 대한 헌신과 애정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했으며, 그나마 뿌리 내리고 살던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로 강제 이주당한, 뼈아픈 우리 근대사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 낸 안타까운 존재인 것이다.

이쯤에서 이스라엘의 동포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위한 국가로 건국됐다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유대인에게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스라엘에 와서 살 수 있는 ‘귀환권(right of return)’을 부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주해 오는 유대인들을 제반 분야에서의 소중한 인적 자산으로 인식,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이스라엘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민자 그룹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동포 정책, 특히 고려인 동포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는 고려인 동포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국가의 더 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08



12



16



- 02 창을 열며** 고려인 청소년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며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 04 이달의 재외동포** 이상덕 청장 "재외동포 인식 바꾸기 위해 재외동포들 모국기여 사례 적극 발굴할 것"
제주 관광산업 발전 이끈 김평진 전 재일제주개발협회 회장
- 08 이슈 & 화제** 재외동포청 · 중기중앙회 · 미주한상총연 합동 점검회의 '준비 이상무'
"미국 정부에 K중기 관세 애로 전달하겠다"
- 10 기획** 재외동포청, 전세계 차세대 리더 연대 구축 나섰다
- 12 초대석 Ⅰ** 캘리포니아주서 매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 지정한 주인공
- 14 초대석 Ⅱ** 한·중·일 가교 글로벌 리더 키우는 전정선 도교샘물학교장
- 16 글로벌 코리안** NFL 쿼터백 스타 카일러 머리 "내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게 자랑스럽다"
- 18 뉴스 속으로** 재외동포청, 입양동포 위한 전담창구 문 열었다
상지대, 국내 최초 '세계한류 · 한상 · 한인대학' 세운다
인권 · 평등 · 정의 구현 앞장...20세기를 빛낸 언론인으로도 선정
김병수 USC 법률 부총장 임시 총장에 선임 미국 사립명문대 한인 총장
- 22 OKA 뉴스**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위해'...동포청-보훈부, 협력한다 외
- 24 동포 마당** "모국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해요" 외
- 25 기고문** 외국인인 아닌 동포로서 모국에 안기고 싶어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
- 26 재외동포청 공지** 2025년도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 모집 공고

발행인: 이상덕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2-6747-0404,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 · 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덕 청장 “재외동포 인식 바꾸기 위해 재외동포들 모국기여 사례 적극 발굴할 것”

재외동포청은 개인 또는 단체의 모국 기여 사례를 발굴해 3월부터 ‘이달의 재외동포’를 신설하고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달의 재외동포’는 첫째, 훌륭한 업적을 쌓으신 분, 둘째,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활동하신 분, 셋째, 재외동포사회에 크게 기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이미 작고하신 분이 될 수도 있고, 생존해 계시는 분도 대상이 되지만, 우선적으로는 고인이 되신 분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절차는 동포사회의 의견을 수렴, 재외공관의 역사적 문헌과 자료 조사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대상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자문위원회 검증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동포청은 설명한다. 취지는 역사책에도 잘 나오지 않지만, 일제강점기나 대한민국 건국시기에 기여하신 분들을 적극 발굴해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이상덕 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달의 재외동포’ 신설배경과 관련 “재외동포들은 나라가 어려웠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항상 모국의 발전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지만, 그 노력에 대한 성과가 우리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사례를 많은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이달의 재외동포’ 사업을 신규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을 위해 광복 이전 독립운동 시기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조국의 독립, 경제 발전, 경제 위기 극복, 문화 강국 도약 등 모국의 발전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헌신한 재외동포를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분들의 모국 기여 활동을 신문과 방송, SNS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기여와 공적을 국민에게 알리면서 국내에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재외동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인식조사’를 비롯해 재외동포의 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지난 2월 11일 인천 송도 소재 재외동포웰컴센터에서 열린 신년 브리핑에서 재외동포들의 모국 기여 사례를 발굴해 2025년부터 ‘이달의 재외동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념 및 이들의 모국 기여 사례를 국내 초·중·고교 등 교과서에 수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또,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대한민국의 자산으로서 재외동포의 소중함을 알려나가고 있다.

이 청장은 또 살아계신 분 중에서 선정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을 선정한 이유 등 ‘이달의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혔다. 이 청장은 “우리 근현대사에는 충만한 애국심으로 조국의 독립, 경제 발전, 경제위기 극복 등 어려운 시기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기여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동포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는데, 이들의 노력과 성과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과거 대한민국이 모두 어려웠던 시기에 상당한 공을 세우고도 주목받지 못하고 잊어진 분들부터 우선 재조명해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역사와 중요성을 알려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 관광산업 발전 이끈 김평진 전 재일제주개발협회 회장

재외동포청이 첫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한 인물은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고(故) 동천 김평진(1926~2007년) 전 재일(在日)제주개발협회 회장이다.

김평진 회장은 성공한 재일동포 기업인으로서 모국과 고향 제주도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제주도는 1960년대 이전까지 육지로 오가는 정기 항공노선이 하나도 없었고, 여객 배편조차 비정기 노선이었을 정도로 외부세계와 단절된 외딴 섬이었다.

그런 제주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제주 출신 재일동포들의 손길이 닿으면서부터였다. 재일제주개발협회가 1961년 2월 도쿄에서 결성되고 초대회장을 맡은 김평진 선생이 재일제주인 14명과 함께 향토시찰단을 꾸려 고향을 방문하면서 오늘날 대한민국 관광 1번지 제주도로 탈바꿈이 시작됐다.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그는 그 자본을 활용해 제주도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섰다. 1963년 제주 최초의 현대식 관광호텔인 제주 관광호텔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관광 인프라 조성에 나섰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운명적인 만남

이후 서귀포 관광호텔과 허니문하우스를 연이어 개장하면서 제주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제주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시설이 거의 없었는데, 그의 이런 투자가 제주 관광산업의 초석이 됐다. 이는 오늘날 개인이 자신의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다.

김평진 회장은 1926년 제주시 회천동에서 출생했다. 15세에 일본에 건너간 후 철공소, 호텔 경영 등으로 부를 쌓았다.

사회활동도 왕성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전인 1961년 재일제주개발협회를 창설해 회장을 맡고, 제주인의 뿌리의식을 일깨우고 이를 향토 개발에 이어지게 하는 붐을 조성했다. 같은 해 재일 한국인거류민단 중앙본부 부단장, 1982년 한·일 친선협회중앙회 부회장, 재일 한국인 상공연합회장, 1985년 한일 친선 중앙회 부회장 등도 역임했다.

그는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공헌하고 남다른 애



고(故) 동천 김평진 전 재일제주개발협회 회장

향심으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특히 고향에 대한 애뜻한 사랑으로 많은 투자를 했다.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제주도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호텔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자수성가한 제주 출신 재일동포 김평진 회장이 박정희 의장을 운명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호텔 건립을 약속했다고 전해진다.

그 결과 지난 1963년 10월 13일 제주 최초의 민영호텔인 ‘제주 관광호텔’(현 하니크라운호텔)이 문을 열었다. 총공사비 3천만 원



1987년 5월 13일 제주여자중고교에 세워진 동상 제막식(좌). 동상 제막식에서 감사의 말씀 전하는 김평진 전 회장.

이 투입된 33실 규모의 작은 호텔이었지만, 제주 관광 역사에서 그 의미는 매우 컸다. 당시 제주에는 초가집과 여관밖에 없어 관광객은커녕 주요 귀빈이 오더라도 마땅히 숙박할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서귀포 관광호텔을 건립하고 허니문하우스를 병합했다.

김 회장의 제주관광호텔 건립과 관련한 내용은 이민호 일본 통일일보 서울지사장의 저서 '재일동포의 모국사랑'에도 기록이 전해진다. 이 책에 따르면 제주도 개발은 김평진 회장과 당시 김영관 제주도지사가 인연을 맺으면서 본격화됐다.

1964년 제주 최초 관광호텔 건립

재일동포로서는 고향 발전에 힘을 보태는 일이고, 행정가로서는

해외투자 유치 겸 지역 개발 사업이 됐다. 1962년 4월 김평진 회장은 김영관 지사의 초청으로 재일제주인 14명과 향토시찰단을 꾸려 고향을 방문했다.

김평진 회장 일행은 제주도로 내려가기 전에 서울에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을 먼저 만났다. 이때 박 의장은 점심을 함께 하면서 제주도 개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구체적인 요망도 나왔다. “제주도에 호텔을 건립해서 관광개발을 위한 민간인의 투자욕을 북돋아 줘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이때 김평진 회장은 “제가 책임지고 해보겠다”며 호응했다.

김평진 회장은 고향 방문 이듬해인 1963년 10월 제주도 최초의 호텔인 제주관광호텔을 세웠다. 제주신문 보도에 따르면 1년 6개월의 공사 끝에 세워진 제주도 최초의 호텔은 건평 2천890㎡의 부지 위에 33개의 객실, 커피숍, 식당, 쇼파공간을 두루 갖췄다.

폐교 위기 제주여자학원 인수해 정상화

김평진 회장의 행보는 호텔 사업에 그치지 않았다. 교육부문에 대한 관심도 남달라 재일 동경 한국학원 이사장으로서 평소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김 회장은 1966년 경영난으로 폐교 위기에 처해있던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해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제주 여자중고등학교를 정상화시키는 등 제주도 여성교육에 열의를 쏟아 부었다. 현재 제주여자학원은 장남인 김학남 이사장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재단의 간섭이 전혀 없는 모범적인 학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고인은 1973년 제주신문사(현 제주일보) 회장에 취임하여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배당금도 없는 투자를 계속하며 제주언론의 발전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개발협회장으로 있을 때, 고향인 회천마을에



1987년 제주도 문제 연구소장과 제주 발전에 대한 간담회 모습.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아, 전기 가설과 학교 건립, 마을회관 개축 등에 굵직한 지원을 했다.

이밖에 제주도 종합경기장과 해양운동장 건설 당시에도 막대한 금액을 출원해 전국 소년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스포츠 창달에도 크게 힘썼다.

제주도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

김평진 회장을 비롯해 재일제주인들이 제주의 사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제주도 사회에서의 평가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학계를 중심으로 이들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센터장 이창익)가 지난 2013년 2월 22일 오사카시립대학과 ‘재일 한인 기업 및 기업가와 한인 마켓’을 주제로 개최한 공동 심포지엄에서 나가노 신이치로 다이토분카 대학 명예교수는 ‘재일제주인’의 역할론을 부각했다.

나가노 교수는 “제주도의 경제·사회 발전은 초기부터 재일제주인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특히 오늘날 제주도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2대 사업인 관광산업과 감귤산업이 재일제주인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을 제대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가노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식집계를 근거로 2007년까지 재외제주도민의 기증총액은 281억원으로, 1980년대까지는 대부분이 재일제주인에 의한 기부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화폐가치 변동과 파악되지 않은 개인·마을단위의 물품·현금 제공까지 합치면 실제 규모는 훨씬 컸을 것으로 추산했다.

제주의 감귤산업 일궈낸 주인공

특히 제주도의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 신품종 감귤 묘목을 보급하고, 제주 농민들을 일본으로 초청해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도록 지원해 제주의 감귤산업을 일궈낸 것도 기억할 만하다.

이렇게 제주도의 관광, 교육, 언론에 선구적이고도 뚜렷한 족적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1963년 제주도관광호텔 개장식 모습(위). 제주관광호텔

을 남긴 김 회장은 1963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1981년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198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다. 1998년에는 제주대학교에서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세계적인 제주인으로,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전 생애를 바친 김 회장은 80세를 일기로 지난 2007년 3월 29일 별세했다. 

김평진 회장이 1966년 폐교 위기에 처해있던 학교법인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해 이사장으로 취임해 정상화 시킨 제주 여자중고등학교 전경.



재외동포청 · 중기중앙회 · 미주한상총연 합동 점검회의의 ‘준비 이상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중앙회 DMC 타워에서 열린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주최·주관 기관장 합동점검 회의에서 이상덕(오른쪽에서 4번째) 재외동포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한달여 앞둔 4일 재외동포청은 중소기업중앙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매일경제신문과 함께한 점검회의에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중앙회 DMC 타워에서 열린 대회 주최·주관기관장 합동점검 회의에는 주최 기관장인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대회장을 맡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공동주최 기관장인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 공동주관 기관인 매일경제 손헌덕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회의에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회의 주요 운영계획을 공유했고, 기업전시회 부스 모집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주최·주관기관들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마지막까지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업전시회 450여개 부스 조기 마감

무엇보다 그동안 적극적인 대외홍보와 유치 활동으로 대회 핵심 프로그램인 기업전시회의 450여개 부스가 조기 마감된 만큼,

앞으로 부스 설치와 수출 상담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대회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 강화의 장(場)으로 삼기 위해 국내 주요 인사들과 미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기로 했다.

참가자들은 올해 대회를 역대 어느 때보다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 동포 경제인들이 새롭게 함께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뜻을 모았다.

수출상담 등 차질없도록 준비 다짐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한상경제권으로의 도약 - 한상과 함께 중소기업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4월17일부터 20일까지 애틀랜타 개스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동포 경제인 3천여 명, 일반참관객 수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이상덕 청장은 특히 “이번 대회를 계기로 올해를 ‘한상경제권 구축 원년’으로 선포할 것이며, 이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커다란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정부에 K중기 관세 애로 전달하겠다”

김기문 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장, 행사장 미리 찾아 현장 점검

전 세계 한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4월 17~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대회장을 맡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현장을 미리 찾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회에 캘리 레플러 미국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한 정계 인사를 초청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과 관련한 한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조를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8~19일(현지시간) 애틀랜타 개스사우스컨벤션센터를 찾아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 현황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에는 김 회장과 이경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장, 김민철 재외동포청 교류협력국장 등 주최·주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동행했다. 김 회장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회식, 기업전시회, 미국 연방정부·주정부 경제관료들과의 네트워킹 방안 등 핵심 프로그램 준비 상황을 점검했고, 주요 행사별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 한인 경제인이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매년 진행되는 글로벌 경제 행사다. 올해 대회는 중기중앙회, 재외동포청,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등 주관으로 ‘한상경제권으로의 도약, 한상과 함께 대한민국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김 회장은 2023년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제21차 대회에서 명예대회장을 지낸 데 이어 이번 행사에서는 공식 대회장을 맡았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장을 국내 기업인이나 중기중앙회장이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이 중기중앙회장으로서 대회장을 맡은 것은 세계 한상들과의 적극적인 교류 기회를 만들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지난해 대한민국 수출이 세계 6위를 달성했고, 이 중 40% 이상이 중소기업 제품 수출에서 나왔다”며 “이번 대회가 우리 중소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수출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 2번째)이 4월 17~20일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열리는 미국 애틀랜타 개스사우스컨벤션센터에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올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는 K뷰티, 푸드 등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400여 개 기업전시회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이번 대회를 민간 외교의 장으로 삼아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안과 다음달 2일 발표될 예정인 21개국 대상 상호관세는 미국에 직접 수출하거나 미국 수출 대기업에 납품하는 국내 중소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회장은 “레플러 청장 등 연방정부 인사,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등 주정부 경제관료와 만나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애로를 전달하겠다”며 “한미 양국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청, 전세계 차세대 리더 연대 구축 나섰다

애틀랜타서 네트워크 성사...지역별 차세대대회 통해 글로벌 차세대 소통 강화



지난 8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세계한인차세대대회(FLC) 첫 지역 차세대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5년도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 Conference, 이하 FLC) 첫 지역 차세대대회가 지난 8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됐다. FLC 애틀랜타 대회는 그간 세계한인차세대 대회 참가자가 주축이 돼 리유니온(Reunion) 행사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다.

케이트 구 조지아대 교수, 정준 변호사, 박평강 로렌스빌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이 주축이 되어, 20명의 애틀랜타 차세대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조지아한인교수협회, 재미과학자협회,

재미교육자협회, 재미한인여성과학자협회, 조지아한인변호사협회, 한미연합회, 조지아한인입양인연합회 등에서도 참여해 내실 있는 네트워크 행사가 됐다.

특히, FLC 애틀랜타 대회에서는 재외동포청의 사업과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차세대와 재외동포청의 적극적인 소통 채널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게 됐다. 차세대들은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외동포청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콘텐츠,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적인 소통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건의했다.

FLC 지역 차세대 대회는 앞으로 차세대동포의 역량 결집의 구심점이 되고, 모국과 동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공식적인 창구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이 대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차세대동포 리더들을 중심으로 하는



지난해 11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FLC 뉴욕지역 차세대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맨 위). 지난해 11월 1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FLC 유럽지역 차세대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중앙). 지난해 11월 3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FLC 카자흐스탄지역 차세대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아래).

공식적인 협의체가 될 '글로벌 차세대 씨앗'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핵심 그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3년 6월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개최된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한 차세대 리더들은 재외동포 사회 내 차세대 리더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인식하고, 한국과의 연계 강화를 다짐하는 내용을 담아 그해 12월 1일 선언문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차세대 리더들은 선언문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동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첫째, 우리는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를 계기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둘째, 우리는 글로벌 코리아너로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과 동

시에, '한민족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민족의 언어를 익히고, 문화적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힘쓰며, 이러한 우리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셋째, 우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알게 된 재외동포청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사업에 적극 공감하며, 이에 적극 참여한다.

넷째, 우리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에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 차세대 동포위원회'를 만들고, 거주국에 돌아가 지역별 차세대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노력하며, 재외동포청은 우리의 활동을 지원할 것을 건의한다.

재외동포청이 연회 한국에서 개최하는 차세대대회에는 각 동포사회의 대표급 차세대가 한자리에 모인다. 이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각자 소속된 동포사회의 현황을 이해하고, 민족과 모국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한인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거주국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소중한 민족정체성 인식의 경험과 모국과의 끈끈한 연대감을 느끼는 순간을 단순히 추억의 한 페이지로 끝내지 않기 위해, 재외동포청(차세대동포인권과)은 현지에서 차세대동포가 주최하는 FLC 지역 차세대대회를 기획해 추진 중이다.

2024년 지역 차세대대회는 미국 뉴욕과 애틀랜타, 영국 런던,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됐다.

각 대회에서는 현지 동포사회의 현안 이슈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차세대들이 주로 모인 만큼, 앞으로의 진로와 학문적 방향을 돕는 멘토링과 선후배간 네트워킹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멘토가 되어줄 한인 차세대 선배를 만날 기회 부족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차세대 동포들이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만든 것이다. **창**

캘리포니아주서 매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 지정한 주인공

‘안창호의 날’, ‘김치의 날’, ‘태권도의 날’도 발의...“저는 한인의 핏줄 받은 사람”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유관순의 날’이 선포됐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 상·하원 모두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했다.

이번 결의안(MR 144)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유일한 한인 의원인 최석호(80) 주 상원의원(37지구)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3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3·1운동의 거룩한 의미를 기억하고, 한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날을 캘리포니아주 내 다민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날로 명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발의안 통과 후 “유관순 열사는 1919년 독립 만세 운동 후 모진 고문에도 ‘조국을 잃어 버린 고통만큼은 못하다’고 말 씀하셨다”며 “열사의 항거 이후 수많은 독립투사가 그 길을 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6년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당시에도 ‘유관순의 날’ 결의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최 의원은 경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무부가 파견하는 평화봉사단의 한국어 강사로 뽑혀 1968년 미국에 이민 왔다. 늦깎이 학생으로 피츠버그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남가주대(USC)와 UC어바인 교수로 재직하다가 1993년 학원 사업을 시작했다. 그가 정치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50세를 훌쩍 넘은 뒤였다.

어바인시 교육위원 2선, 어바인 시의원 2선, 어바인 시장 2선, 주하원 의원 3선을 역임한 관록의 정치인이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주의회 유일한 한인 의원으로 당선된 최 의원을 서면으로 만났다.

늦었지만 주 상원의원 당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미주 안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의회에 진출한 한인 출신은 제가 유일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인으로도 유일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고령으로 당선된 기록도 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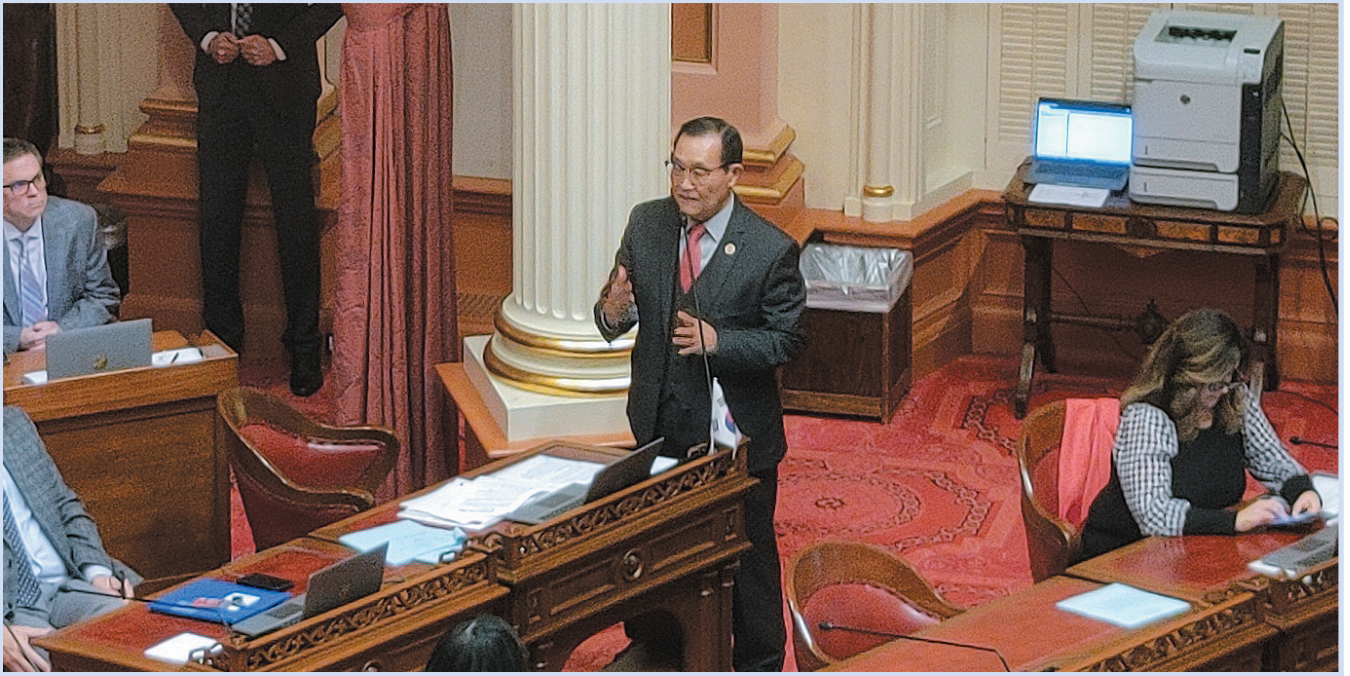


최석호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니다. 제가 한인 출신으로 아시아인을 대표하는 입장에 서게 되어 본의 아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출마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관심과 기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힘닿는 데 까지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간 캘리포니아주 한인들의 권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 가장 보람되고 기억되는 일을 꼽는다면 무엇인지요.

세월을 두고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치게 될 법안 하나는 하원에 있을 때 통과한 AB 667 법안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부터 발효가 됐는데, 이 법안은 외국의 어린 아이들이 캘리포니아 주로 입양 오면 시민권이 보장되게 하는 법안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입양아가 미국 입국 후 완료해야 할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18세 이후에는 서류 없는 불법 체류자가 돼 출신국으로 추방되는 사례가 일어나는 비극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민권은 연방정



지난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의회에서 최석호 의원이 유관순의 날 결의문을 상정하며 상원 의원들에게 지지해 달라는 연설을 하고 있다.

부의 소관이지만 연방의회에서 이 안건처리를 수년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캘리포니아주로 입양되는 어린이만큼은 이 법안에 의해 입국 후 60일 안에 거주지역 카운티에 출생신고가 등록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도산 안창호의 날, 김치의 날, 태권도의 날 등 많은 한국 관련 결의문을 통과 시켜서 한국과 한인들의 위상을 향상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매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된 데 대해 소감과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3·1운동을 통해 자주독립을 열망했던 한국인들의 의지와 결단을 보였고, 올해로 106주년을 맞이한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계기가 됐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제국주의 일본에 평화적으로 저항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1919년 독립 만세 운동 후 모진 고문에도 '조국을 잃어 버린 고통만큼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열사의 항거 이후 수많은 독립투사가 그 길을 갔습니다. 저는 한인의 핏줄을 받은 사람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뿐만 아니라 조국의 홍보와 미주 동포 사회에 유익한 법 제정 및 결의문 채택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미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고, 하원에서 3·1절과 그날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한지 6주년을 기념하는 결의문을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그때마다 한인 동포들과 총영사관의 참석으로 의회에 한인들의 결집하는 힘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주로, 한인들은 주 발전과 가주의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유관순의 날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향후 한국과 관련한 또 다른 기념일을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항상 저는 한인들의 의견과 요청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제안이 더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명기의 날', '직지의 날' 등이 있습니다.

올해 계획과 향후 목표는 무엇인지요.

주 하원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주민의 안전과 중소기업의 발전, 경제 안전의 향상, 한인들의 권익 보장에 힘 쓸 예정입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 주세요.

미국에 있는 정치인의 입장으로 볼 때 50개 주로 구성된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와의 외교는 워싱턴DC 중심의 외교뿐만 아니라 각 주 및 시 단위의 외교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주만 하더라도 독립국가로 여긴다면 세계 5위의 경제력의 위치에 있습니다. 

“한·중·일 가교 역할 하는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게 꿈” 도쿄샘물한글학교, 10만 재일 조선족 동포 사회의 희망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아 일본서 유일 조선족 한글학교로 주목



도쿄샘물한글학교 전정선 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샘물학교 학생들을 한국과 중국, 일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글로벌 리더로 키우는 게 꿈이자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게 꿈입니다. 샘물학교는 10만 재일 조선족 동포 사회의 희망이 되고 있어요. 한글학교는 한국문화 세계화의 첨병에 선 21세기 독립군이라고 생각해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에서 유일하게 중국 조선족 동포 자녀들 대상 한글학교로 주목 받고 있는 일본 도쿄 샘물학교 전정선(69) 교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학이나 사업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온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많아지면서 일본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도 크게 늘었다.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 동포는 약 10만 명에 이른다.

샘물학교 학생들의 경우 할아버지·할머니가 태어난 곳은 한국이고, 부모는 중국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다. 이런 배경을 가진 아

이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인 학교에서 일본인으로 교육받고 성장해 되면서 이중·삼중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자녀들의 정체성 문제는 조선족 동포들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예요. 일본어로 수업을 듣고, 일본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부모들이 우리말 교육을 챙기지 않으면 한국말을 모르고 지내 중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와도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한국어와 가까워질 기회가 없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말 교육을 해야 한다는 부모들의 절실한 요구가 학교 설립 배경입니다.”

전 교장이 이끌던 재일조선족여성회를 중심으로 조선족 동포 사회는 지난 2008년 샘물 학교를 설립했다. 비록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결국 이들의 뿌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이다. 전 교장은 “살아가면서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한민족이라는 출신은 바꿀 수가

없다”며 “샘물학교 어린이들이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우수한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글학교 교사연수·차세대 모국 초청 연수 큰 힘

격주로 운영되는 샘물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는 100여 명. 도쿄에 있는 본교 외에 도리테와 카메이도, 카나마치에 각각 분교를 두고 있다. 올해 안에 신아라이에도 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와 중국어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의 전통문화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재일 조선족 동포들의 자원봉사와 후원금으로 어렵게 꾸려가던 이 학교는 지난 2015년 재외교육기관으로 인정받으면서 조금씩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재외동포청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 일부와 한국어 교재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한글학교 교사연수와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에서 지원하는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 초등학교 대상 한국어 집중캠프는 아이들에게 모국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 있고,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종이문화재단과 K-종이접기 세계화 MOU

지난 7일 서울 중구 장충동 종이나라박물관에서 재단법인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이사장 노영혜)과 K-종이접기 세계화를 위해 협력하며 상호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 교장은 지난 10일에는 종이나라박물관에서 지구촌 한글학교 미래 포럼(공동대표 박인기·김봉섭) 주최로 열린 제7회 발표회에 초청받아 ‘재외동포 차세대교육·도쿄샘물학교 사례’라는 제목으로 일본에서 일궈낸 조선족 차세대 동포 교육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6일에는 샘물학교에서 열린 전통문화 수업의 하나로 종이접기가 진행됐다. 모국 방문 연수를 다녀 온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해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지구촌 한글학교 미래 포럼에 초청돼 주제발표

전 교장은 10일 사례발표에서 “지난 2014년 일본 내 외국인들 대상으로 도쿄에서 열린 국제홍백노래자랑에서 샘물학교어린이 합창단이 출전해 최우수상인 관광청 장관상을 받는 쾌거를 올린 적이 있다”며 “한국어·중국어·일본어·영어 등 유일하게 4개 언어로 노래해 큰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수상 후 인사말을 일본말로 밖에 표현할 수 없어 부끄러웠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샘물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일본 내 유명대학에 진학하고,



16일 도쿄 샘물학교에서 열린 종이접기 수업. 종이문화재단(이사장 노영혜)이 제공한 종이접기 교재와 재료들을 이용해 수업이 진행됐다.

졸업 후 전문직으로 취업에 성공한 학생들이 다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도쿄샘물학교는 고정된 교실이 없다보니 주민센터 등 여러 거처가 옮겨 다니며 떠돌이 수업을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외국인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세종학당, 재외동포청이 총괄하는 한글학교, 교육부 소속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교육원이 서로 혼재돼 있어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세종학당·한국교육원 인프라 한글학교서 활용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세종학당과 한국교육원의 여유 공간 및 인프라를 제반 여건이 열악한 한글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전 교장은 “17년간 학교를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너무 힘들어 몇 번이나 그만두려고 했다”며 “하지만 운영을 맡아하겠다는 마땅한 사람도 없고, 대학교수 출신의 일본인 남편이 ‘누군가는 해야만 할 일이라며, 일을 벌였으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학교가 될 때까지 마무리도 책임지고 하라’고 독려해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족 여성들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일본에서의 취업, 사업, 육아 등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2008년 재일조선족여성회를 설립해 초대회장을 맡기도 했다. [창](#)

NFL 쿼터백 스타 카일러 머리

“내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게 자랑스럽다”

외할머니가 한국인... “집에서 한국어 배우고 한국 음식 먹으며 자라”



카일러 머리는 평소 훈련 때도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져 있는 유니폼을 자주 입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위). 축구도 좋아하는 카일러 머리는 평소 훈련 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즐겨 입는다.

한국계 미국인 3세로 미국프로풋볼(NFL)을 대표하는 쿼터백 가운데 한 명으로 활약 중인 카일러 머리(27·애리조나 카디널스)는 최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본사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항에서 짐을 찾고 나오니 수많은 팬이 반겨줬다. 내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환영받은 건 축복이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활짝 웃었다.

이어 “내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게 자랑스럽다. 미국 프로 스포츠에서 한국계 선수가 최고 수준에서 활약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최고 수준의 경기를 한다는 게 자랑스럽다”고 덧붙혔다.

머리는 외할머니가 한국인인 ‘한국계 3세 미국인’이다. 그는 “할머니 곁에서 오래 지내지 못해서 많은 추억을 남기지는 못했지만, 대신 어머니가 저를 키우며 항상 한국어를 알려주셨다. 그리고 음식이나 어린이 TV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최대한 많이 접하도록 해주셨다”고 했다.

“한국계라는 이유만으로 환영받아 축복”

머리는 사상 최초로 NFL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양쪽에서 1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2019시즌 MLB 신인드래프트에서 오클랜드 애슬레틱의 1라운드 전체 9번 지명을 받았고, 이후 NFL 애리조나 구단은 드래프트에서 그를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호명했다.

머리의 신장은 178cm로 거구가 즐비한 NFL 무대에서 보기 드문 ‘단신 쿼터백’이다. 쿼터백의 키가 작으면 거구들 사이에 파묻혀 같은 팀 동료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교통사고’와 맞먹는다는 상대 수비수와 충돌에서 체구가 작으면 더 큰 충격을 받는다.

머리는 신체적 약점을 극복하고 민첩성과 강력한 어깨를 앞세워 NFL을 대표하는 쿼터백 가운데 한 명으로 자리 잡았다.

입단 당시 4년 총액 4천516만달러(약 506억원)를 받았던 머리는 기량을 인정받아 2022시즌을 앞두고 애리조나와 2024년부터 발동하는 5년 최대 2억3천50만달러(3천320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미국프로풋볼(NFL) 한국계 스타 쿼터백 카일 머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본사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계 선수’라는 정체성이 핵심 요소

머리는 ‘한국계 선수’라는 정체성이 자신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NFL 경기 중 태극기를 헬멧에 붙이고 뛰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자기소개에 한글로 ‘초록불’을 적어 놓기도 했다.

그는 “어렸을 때 내 코는 납작했고, 눈은 가늘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한국계라는 사실을 자부심으로 새겼다”고 했다.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은 미식축구를 살짝 변형한 신규 종목 플레그 풋볼이 정식 종목으로 도입되는 대회다.

이날 인터뷰에서도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새겨진 옷을 입고 등장한 머리는 한국 대표로 출전할 생각이 있다는 질문에 “기회가 생긴다면 당연히 출전할 생각이 있다. 물론 내 인

생 가장 큰 목표는 슈퍼볼 우승이지만, 슈퍼볼에서 우승하거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된다고 해서 만족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기회가 되면 한국 대표로도 출전할 생각”

고등학교 시절 내야수로 뛰다가 텍사스 A&M 대학교로 진학하며 미식축구에 전념했던 머리는 오클라호마 대학교로 전학 간 뒤 다시 야구를 시작했다.

외야수로 뛴 그는 대학리그에서 5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6에 홈런 10개, 47타점, 도루 10개로 재능을 뽐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애슬레틱스로부터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지명받았다.

그러나 머리는 이후 2018년 오클라호마 대학교 주전 쿼터백으로 활약하며 대학 최고의 선수에게 주는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았고, NFL 드래프트에서 애리조나의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지명돼 미식축구를 진로로 선택했다.

머리는 이날 인터뷰에서 “야구를 포기한 건 제 인생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 오클랜드 구단은 내가 대학에 돌아가서 미식축구하도록 허락해줬다”고 돌아봤다.

머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선수다. 과거 미식축구와 야구를 병행한 선배들의 길을 따라갈 생각은 없을까. NFL과 MLB를 동시에 누빈 가장 유명한 사례는 보 잭슨이다.

잭슨은 1980년대 말 NFL에서는 로스앤젤레스 레이더스 러닝백으로 활약하고, MLB에서는 외야수로 뛰었다. 그것도 한 종목을 쉬고 다른 종목에서 뛴 게 아니라, 비시즌을 활용해 두 종목을 동시에 소화하는 괴물 같은 체력을 보여줬다.

잭슨이 NFL과 MLB 양쪽에서 올스타에 선정된 선수였다면, 디온 샌더스는 슈퍼볼(NFL)과 월드시리즈(MLB)에 모두 진출한 이력이 있다. 또한 샌더스는 NFL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정도로 미식축구에서 큰 발자국을 남겼다.

머리는 ‘야구 선수로 뛴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야구하고 싶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본 것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야구공을 치는 것이었다. 둘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미식축구의 인기가 높지 않다는 걸 안다는 그는 “희생과 동지애, 노력, 승리를 위한 규율 등 모든 것이 있는 종목이다. 야구와 농구를 경험해봤지만, 이런 요소들 때문에 미식축구가 세계 최고의 종목”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 입양동포 위한 첫 ‘전담창구’ 문 열었다

광화문 서비스센터에 상담인력 배치…가족찾기 등 종합상담 제공
이상덕 청장 “5월 파리서 입양동포 대회와 관계기관 정책간담회도 열 것”

국내외 입양 동포들의 친부모 등 가족찾기를 비롯해 고초와 애로사항 등을 상담해주는 전담 창구가 25일 문을 열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입양 동포들의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담 창구를 처음으로 개설해 운영한다. 전담 창구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2층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에 마련됐다.

전담 창구에는 영어가 능통한 전문 상담원을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한국어 구사가 어려워 민원 접수에 불편함을 겪은 입양 동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입양 동포가 창구를 방문해 민원을 신청하면 상담원은 내용을 파악해 입양 동포의 민원 업무를 유관기관과 연결해 민원 내용을 상호 공유해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경찰청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협조 아래 추진하는 유전자 검사 및 친생부모 찾기와 입양정보공개 청구, 기관별(재외동포청, 아동권리보장원) 공모사업 신청 절차, 사증(F-4, H-2) 발급 상담, 기타 민원 문서(제적 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지원 상담 및 관련기관 연결 등 민원 응대에 관한 종합상담을 제공해 입양 동포들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동포청은 입양 동포와 모국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향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입양 동포의 안정적 모국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입양 동포 정책간담회를 열 계획이며,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입양 동포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정책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인사말에서 “고도 경제성장 이면의 아픈 역사 속의 전 세계 17만 해외입양동포들을 이제 재외동포청은 보듬고 돌봐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의 입양동포 전담창구 개설은 작



25일 열린 입양동포 전담창구 개소식에서 이상덕 청장(가운데)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왼쪽), 김성미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오른쪽)과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은 출발이지만 해외입양동포와 모국이 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입양동포들이 친부모를 찾기 위해 모국에 오면, 언어 소통도 원활하지 않고, 여러 기관들을 찾아다녀야 하는 큰 불편함이 있었다”며 “앞으로 전담창구에서 원스톱으로 관련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특히 “오는 5월 파리에서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 입양동포단체와 공동으로 해외입양동포대회를 개최해 해외 거주 입양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담 창구 개소식에는 이 청장을 비롯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주승은 경찰청 청소년보호과장, 해외입양인연대의 김종우 이사장과 스웨덴 입양 동포 출신인 김성미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창

2026년 설립해 2028년 '글로벌 한류 연합대학' 전환 계획

상지대 성경룡 총장(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국내 최초로 '세계한류·한상·한인대학'을 세운다.

성 총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종이문화재단에서 지구촌 한글학교 미래 포럼(공동대표 박인기·김봉섭) 주최로 열린 제7회 발표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세계한류·한상·한인대학'을 2026년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총장은 "전 세계 한류 팬은 2억 2천500만명, 한상기업 11만개, 재외동포 708만"이라며 "한류와 한상, 한인들은 초저출생, 인구소멸 시대에 지방대학과 한국 사회를 위한 미래의 신 인구동력, 신 성장동력으로 공동번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류와 한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역설했다. 그러면서 2026년 설립을 목표로 국내 최초의 '세계한류·한상·한인대학' 청사진을 제시했다.

성 총장은 이를 위해 올해 중 세계한류·한상·한인대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대학을 대학 산하기구로 설립키로 했다.

이어 2026년 1단계로 최대 5만 명 규모의 사이버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사이버대학에는 K-한글, K-컬처, K-푸드, K-의료&스포츠, K-관리(Management) 등 5대 교육 분야의 관련 학과를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2단계로 상지대를 글로벌 캠퍼스(하이브리드 캠퍼스)로 운영하고, 최대 2천 명 규모의 해외유학생을 유치하며, K-한글 등 5대 교육 분야를 위주로 다른 전공분야도 대폭 개방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해외 유학생과 한국 학생이 학습, 문화 활동, 스포츠, 동아리 활동, 기숙사 생활에 공동 참여한다는 것이다.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되, 1차적으로는 고성능 동시통역기 또는 동시통역 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단계는 2028년 한류기반 아시아판 에라스무스(Erasmus) 프



지난 10일 서울 중구 장충동 종이문화재단에서 지구촌 한글학교 미래 포럼 주최로 열린 제7회 발표회에서 성경룡 상지대 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로그램인 글로벌 한류 연합대학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에라스무스 프로그램(ERASMUS·European Region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은 유럽 연합에 속한 나라들 사이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다. 2013년 기준으로 27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를 했다. 현재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4000개 이상의 대학들이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성 총장은 상지대와 아시아 지역 20개 대학과 대학연합을 구축한다고 전했다. 연합대학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은 어느 대학이라도 자유롭게 입학, 수강, 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각 대학은 자국의 언어, 문화, 주요 전공을 중심으로 가르치되, 한글과 한류문화를 폭넓게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성 총장은 이와 함께 상지대와 강원도가 주축이 돼 '글로벌 한류 문화올림픽' 기획단 및 조직위원회도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글로벌 한류 문화올림픽과 '세계 한류의 날' 제정 및 '한상과 한인의 고향 방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 · 평등 · 정의 구현 앞장 20세기를 빛낸 언론인으로도 선정

미주 한인 최초의 주류 언론 기자로 활약하며 억울한 살인죄 누명을 쓰고 사형을 기다리던 이철수 씨의 무죄를 끌어냈던 대기자 이경원 씨가 지난 9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6세.

미주 한인언론과 이경원리더십센터(소장 김도형) 등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독립유공자인 이형순 지사의 아들인 고인은 1928년 개성에서 태어났다. 이 대기자는 고려대 영문학과 졸업 후 1950년 미국으로 건너가 웨스트버지니아대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한 뒤 1955년 일리노이대에서 언론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아직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했던 1956년 아시아계 이민자 최초로 주류 일간지인 테네시주 킹스포트 타임앤뉴스에 기자로 입사했다. 이후 찰스톤 가젯지로 자리를 옮긴 후 애플래치아 광부들이 겪는 진폐증 문제를 비롯해 빈곤과 인권 운동 등을 주로 취재했다.

1970년 새크라멘토 유니언 신문으로 이직 후 1973년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갱단 살인 사건에 휘말려 복역하던 이철수 씨의 억울한 사연을 100여 건 보도해 무죄를 끌어내기도 했다. 당시 만 18세 청년이던 이철수는 재판에서 아시아계의 외모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백인 목격자의 증언도 더해져 중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접한 고인이 끈질긴 취재로 억울한 사연을 폭로하면서 한인을 포함한 아시아계 공동체에서 구명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고, 이철수는 10년의 옥살이 끝에 풀려났다.

이 사연은 할리우드 영화 '트루 빌리버'에서도 묘사됐고, 구명 운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리 이철수(Free Cholsu)'로도 제작됐다. '프리 이철수'는 2003년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을 받기도 했다.

고인은 1979년에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인들의 목소리를 주류사회에도 전달하기 위해 최초 한인 영자신문인 코리아타운(KoreaTown Weekly)도 발간했다.

소수민족 인권 보호에 평생 앞장서 온 고인은 1990년 미주한국



다큐멘터리 '프리 이철수' 앞에서 기념 촬영한 대기자 이경원 씨.(이경원리더십센터 제공)

일보 영문 편집장을 지낸 후 NBC방송 고문을 거쳐 UC데이비스대에서 저널리즘을 강의하기도 했다.

평등 · 인권 · 정의 구현 등에 앞장서 온 공로로 2007년 미국의 대표적 인권 단체인 정의증진재단이 수여하는 정의상을 받았고, 아시아 아메리칸 저널리스트 협회 최초로 종신 업적상을 받기도 했다.

고인은 미국 워싱턴DC 교외 '알링턴 언론 기념관'에 20세기를 빛낸 500명의 미국 언론인 가운데 유일한 동양계 기자로 선정되는 영예도 누렸다.

고인의 장례식은 북가주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엄수됐다. 

김병수 USC 법률 부총장 임시 총장에 선임 하버드 졸업 · 연방검사 지내…“미국 격변기 대학 역할 고민”

미국 서부의 대표적 사립 명문대인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임시 총장에 한인 이민 2세인 김병수(52) USC 법률 담당 부총장이 선임됐다. 그는 오는 6월 퇴직하는 캐럴 폴트 현 총장의 후임이 선발될 때까지 임시 총장 역할을 맡는다. 미국 사립대학교 고위직에 오른 한인 중 한명이다.

김 부총장은 새롭게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면서 현재 미국 연구대학들은 큰 혼란에 빠진 상태여서 대학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USC는 연구를 하는 대학이면서 의료, 음악, 스포츠 영역에서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서 “앞으로 USC가 LA와 캘리포니아, 미국과 전 세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장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변호사와 연방검사, 미국 최대 비영리 의료기관인 카이저퍼머넌트 등을 거쳐 대학에서 일하게 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연방검사로 화이트 칼라 범죄를 주로 다루다가, 로펌인 존스데이에서 일하던 중 카이저퍼머넌트의 이직 제안을 받았다”면서 “사회에 영향력이 큰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 합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2020년 USC에서 법률 담당 부총장으로 영입된 후 학내 시위문제를 해결하는 등 USC의 굵직한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인 출신으로 USC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걸 기뻐하면서 한국과 USC의 깊은 인연에 대해서 감사했다. 그는 “USC에는 한국학 연구소가 있고 많은 한인들이 기여를 해오고 있다”면서 “제이미 리 제이미슨 리얼티 최고경영자(CEO)가 USC 이사회 일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인 이민자들이 USC뿐만 아니라 LA와 캘리포니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팝과 K드라마를 비롯해 한국이 창의 자본을 갖고 이를 세계에 수출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K



김병수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부총장

팝을 듣지는 않지만 한국에서 온 아티스트들이 LA에서도 공연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아마추어 첼로 연주자로 코로나19 기간 패서디나 자택에서 열었던 소규모 공연이 지역 사회에 화제가 되면서 LA타임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셋다운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어느 주말에 집 밖에 나와서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연주를 듣기 시작했다”면서 “소문이 퍼지면서 정기 공연이 되었고, 신문에 소개된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총 12번이나 연주를 했다”고 회고했다.

미국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는 여름방학에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자주 왔었다는 김 부총장은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아이스크림’ 카트로 꼽았다. 한국에 와서는 주로 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댁에서 지냈다는 그는 “더운 여름에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여전히 기억에 난다”면서 “외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오목’도 여전히 생각난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위해’… 동포청-보훈부, 협력한다

이상덕 청장-강정애 장관, 6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 MOU 체결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해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와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6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이상덕 청장과 강정애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보훈 교육 지원을 비롯해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국내외 독립·참전 관련 보훈기념사업 추진 ▲국의 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및 유산의 보존·활용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의 발굴·예우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의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양 기관의 협력으로 이제 보훈분야까지 대한민국과 재외동포 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오른쪽)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편 이 청장은 이날 MOU 체결 후 1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한국 광복군 그리고 국군’ 전(展)을 관람했다.

재외동포청-인천 연수구청, 국내 귀환동포 지원에 ‘맞손’

변철환 차장, 이재호 구청장과 면담서 교육환경 개선 논의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구청장 이재호)과 국내 귀환동포 지원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은 지난 7일 연수구청에서 이재호 구청장을 만나 국내 귀환동포 지원 효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연수구 연수1동에 있는 함박마을에는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귀환한 고려인 6천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함박마을은 경기도 안산시 땃골마을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려인마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고려인 동포가 사는 곳이다.

동포청은 증가하는 국내 귀환 동포들의 빠른 국내 적응과 생활을 돕고, 나아가 이들이 인구절벽에 직면한 한국 사회의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변철환 차장은 “연수구청이 함박마을에 상생교류소, 다가치 배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오른쪽)은 지난 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을 찾아 이재호 구청장과 국내 귀환동포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움터 등을 설립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는 만큼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면서 “동포청은 한국 사회의 미래 자원으로 자라날 청소년의 교육환경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포청-한국정치학회, 재외동포정책 연구·개발 MOU

세미나·포럼 등 학술교류 활성화 위한 네트워크 구축기로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효과적인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한국정치학회(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2월 27일 체결했다.

MOU에 따라 양 기관은 ▲재외동포 정책 연구·개발 및 자문 ▲재외동포 정책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재외동포 정책 관련 학술 세미나, 포럼 등의 공동 주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한국정치학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정보·자료 등의 상호 교류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인천 송도 소재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덕 청장과 김범수 회장, 김동수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부경대 교수), 홍석훈 한국정치학회 총무이사(창원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상덕 청장은 “700만 재외동포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대한



재외동포청은 2월 27일 인천 송도 소재 본청에서 한국정치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홍석훈·김동수 한국정치학회 이사, 김범수 한국정치학회장, 재외동포청 이상덕 청장, 이기성 정책국장, 김민철 교류협력국장.

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정책 마련을 위해 한국정치학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덕 청장 “경북 기업,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여해달라”

이철우 도지사 만나 요청…국내 동포지원 사업도 협업하기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2월 25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지사에게 4월 17~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에 도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한상 경제권’의 비전을 제시해 기존의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넘어 무역·투자·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의 북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경북 소재 기업들이 해외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또 동포청이 추진하는 국내 체류 동포 맞춤형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도내 거주하는 동포를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동포청에서 실시하는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동포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덕(왼쪽) 재외동포청장이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지사와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경북 도내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교두보가 될 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화답했다.



“모국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 양성해요”

재외동포협력센터, 동포 초청장학생 모집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2025 재외동포 초청장학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국 대학으로 유학하려는 재외동포 차세대 대학(원)생이 대상으로, 선발 규모는 80명이다. 외국 국적 또는 거주국의 영주권을 보유한 재외동포, 입양 동포 및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했거나 이수 예정자로 올해 9월 학기 또는 내년 3월 학기 대학 입학 예정자가 대상이다. 석사과정은 학사 학위를,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학위를 갖춰야 한다.

협력센터는 올해에만 3월 학기 입학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장학생이 되면 지난해 대비 16% 인상된 연간 생활지원금 1천320만 원을 비롯해 최초 입·귀국 항공료, 논문 인쇄비, 보험료 등을 지급하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는 진학 전 한국어 연수 과정도 지원한다. 또 역대 장학생 선배들과의 교류와 대한민국



사진은 지난해 선발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증서 수여식

역사·문화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지원 희망자는 4월 7일까지 코리아넷(www.korean.net)에서 지원 신청 후 관련 서류를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발자는 6월 중 재외공관과 코리아넷을 통해서 공지한다.

샌프란시스코 한인회 8월까지 독립운동 영화 상영회

미국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 한인회(회장 김한일)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22일(현지시간)부터 8월까지 독립운동을 다룬 한국 영화를 연속 상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인회 관계자는 “독립운동가와 민족의 영웅, 조국을 위해 헌신한 선조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6편을 매월 1편씩 특별 상영한다”며 “영화를 통해 후세들에게 한민족이라는 동질감과 정체성을 심어주는 기회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 한인회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1947 보스턴'이다.

광복 이후 최초로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서윤복과 그의 코치이자 전설적 마라토너 손기정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후



대한민국 독립운동 영화 상영회 포스터

8월까지 '말모이', '항거:유관순 이야기', '암살', '봉오동 전투', '동주' 등의 영화 상영이 이어진다.

한인회는 22일 영화 상영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장인환·전명운 의사 의거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두 의사는 1908년 대한제국의 외교고문이던 친일 외교관 더럼 화이트 스티븐스를 샌프란시스코 페리 빌딩 앞에서 사살했다.

김한일 회장은 “매년 두 의사의 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떨쳐 일어난 두 의사의 의거를

기념하며 모든 한인이 조국애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아닌 동포로서 모국에 안기고 싶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승하면서 해외 체류 재외동포들의 모국 방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한 자랑스러운 모국에 머물면서 취업, 투자 등 경제활동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여행을 보내고자 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재외동포가 86만여 명이라고 밝혔지만 국적 회복이나 복수국적 등의 경로로 이미 모국에서 새로운 삶의 동지를 둔 재외동포까지 포함하면 100만 명을 훌쩍 넘는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로서는 풍부한 자본과 노동력을 겸비한 동포들의 모국 귀환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정부도 재외동포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3년 6월 재외동포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재외동포청을 신설했다. 특히 재외동포 기본법을 제정해 모국에 귀환 체류하는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체류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했다. 하지만 국내 체류 동포 정책의 큰 변화를 기대하던 동포사회는 정부의 느린 걸음에 답답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말 재외동포청이 처음 주최한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2024 재외동포 정책 학술포럼)'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경제활동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 동포에게만 허용된 현행 복수국적 제도는 비용만 높이기 때문에 허용 연령 하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높다는 발표가 있었다. 동포들에게 차별적으로 허용되는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의 문제 및 취업 정책이 국내 동포들의 생활에 얼마나 큰 고통을 유발하는지도 조목조목 논의됐다.

그러나 정작 이들 정책의 전담 부서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는 모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의 발언은 동포 정책을 사회 변화와 국가 발전의 주요 도구가 아닌 현실 유지와 통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게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재외동포청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동포 정책이 여러 부처로 분산돼 효율적으로 조정되지 못하는 점,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원 원장

동포들을 출입국 외국인 정책의 프레임에서 관리하려는 법무부의 정책적 완고함에 대해 참석자들의 적잖은 성토가 이어졌다.

특히 국내 체류 동포들의 안정적인 모국 거주 지원을 위한 법 제도와 예산까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정작 재외동포청의 국내 동포 지원 사업을 막아서는 법무부의 '밥그릇 기싸움'에 동포사회의 매서운 비판이 이어졌다. 법무부는 이미 민간단체를 활용한 '동포체류지원센터'를 통해 국내 동포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재외동포청이 또 다시 국내 동포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동포체류지원센터가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예산과 번듯한 사업 하나 없이 허울 좋은 간판만 내걸고 운영되는 속 빈 강정 시스템이라는 것은 동포사회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재외동포들이 모국에서 동포가 아닌 외국인으로 대우받으며 살아간다면 사회 통합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들의 가슴에 쌓이는 원망과 좌절이 과연 한민족 공동체 구성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무슨 도움이 될지 냉철한 반성적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창

※ 기고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재외동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 기관장 회의(3월 4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3월 11일)
- 제4회 정책자문위원회(3월 25일)
- 입양동포 전담창구 개소식(3월 25일)

2025년 3월 재외동포청장 동정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삼일절 기념식 • 4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관련 기관장 회의 • 5일: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연합회 이사장 면담 • 10일: 노영돈 인천대 대외협력부총장 오찬
김영철 배우 면담 • 11일: 김왕기 원미디어그룹 회장 오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13일: 김대영 매일경제 편집국장 오찬 • 14일: 윤기로 재미대한의사협회 이사장 면담
성경룡 상지대학교 총장 면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 19일: 매일경제 국민보고대회
한국경제신문 김정호 대표이사 및 한국경제TV 현승윤 대표이사 면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20일: 김민용 한국푸드표현예술치료협회장 면담
구성모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정책연구원장 면담 • 24일: 이세호 민주평통 동남아남부지회장 면담 • 25일: 제4회 정책자문위원회
입양동포 전담창구 개소식 |
|---|--|

재외동포청 공지

2025년도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 모집

4월 11일까지 10명 모집...동포청서 6개월간 생활지원금 매월 110만원 지급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기회 제공을 위해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파견 인턴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34세 이하인 자로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4년제 대학 4학기(전문대 2학기) 이상 수료한 재학생이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해당 국가의 비자 발급 또는 해외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미국의 경우 J-1 비자 발급 요건 확인 후 지원해야 하며, 인턴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 올해 사업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과 함께 진행 예정으로 전북 국제협력진흥원의 '청년 해외기업 인턴십 지원사업'과 중복해서 지원하면 안된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며, 파견 기간은 5~12월 중 6개월이다. 모집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이다. 인턴 직무는 무역, 행정, 마케팅, 디자인 등 동포기업 희망 사무직이다.

한상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서 작성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제출이 완료되며, 1인당 1개 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다.



2025년도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인턴
모집 공고문

지원 내용은 재외동포청에서 생활지원금(최대 6개월) 매월 110만원, 해외장기체류보험 55만원 1회 실비 지원, 국내교육 실비 등을 제공한다. 또 인센티브로 취업 확정시 근무 국가로 가는 왕복 항공료도 지원된다.

이와 함께 인턴십 진행시 해외 기업에서 6개월간 매월 최소 USD 700 이상 급여를 지급한다. 기타 참여 방법은 전화 032-585-3226, 또는 이메일(mjan23@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빛나기까지 **재외동포**도 함께했습니다.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의 **독립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한 **총영사관** 등
공관 10개 중 9개는
재일동포의 기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
또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에도
재외동포는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